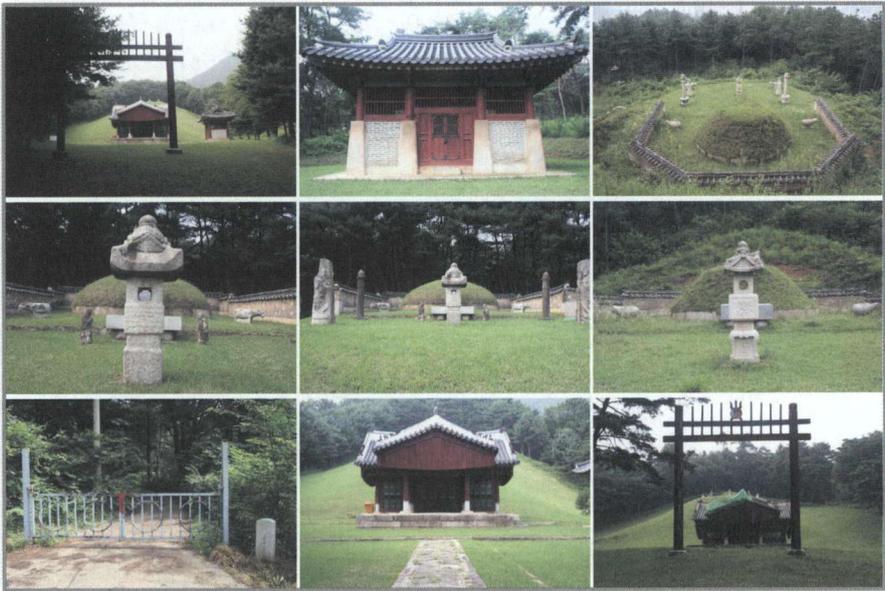


남양주시



순강원(順康園)

1. 연혁

원 주 : 원종 사친 인빈(仁嬪) 김씨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동

지정번호 : 사적 제35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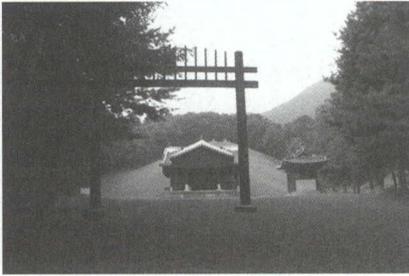
봉원연대 : 1613년(광해군 5)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으로 가는 47번 국도를 따라 포천쪽으로 가다 보면 밤섬유원지를 지나게 되는데, 이곳을 지나면 내각리로 들어가는 삼거리 길이 나온다. 이곳 삼거리에서 내각리 마을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면 마을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순강원에 도착할 수 있다. 현재 순강원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나, 관계기관의 허락을 받으면 관람



순강원 원경

할 수 있다.

순강원은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후궁이며 원종(元宗 : 후에 추존됨)의 생모인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묘(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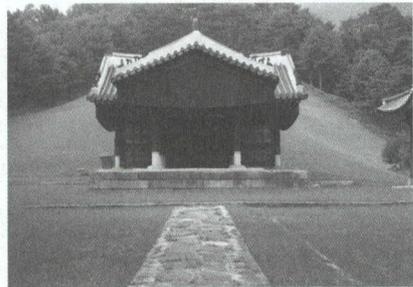
인빈 김씨는 조선 16대 인조의 할머니이며,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추종된 왕)의 생모이다. 무덤 주위를 둘러싸

는 담장(곡장)을 둘렀으며, 묘비석을 비롯하여 여러 석조물이 있다.

원(園)의 시설로는 봉분(封墳) 곡장(曲墻) 석호(石虎) 석양(石羊) 묘비석(墓碑石) 혼유석(魂遊石) 망주석(望柱石) 문인석(文人石) 장명등(長明燈) 사초지(莎草地) 등이 있으며 묘소 앞에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이 있고 묘진입로에 신도비(神道碑)와 재실(齋室)이 있다.

기록은 묘갈(墓碣)의 전면에 「유명조선국인빈김씨묘(有明朝鮮國仁嬪金氏之墓)」라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기록이 없다. 정자각의 동측 비각안에 있는 비(碑)의 전면에 「유명조선국경혜인빈순강원(有明朝鮮國敬惠仁嬪順康園)」이라 새겨져 있으며 건립시기는 「황명승정기원후삼십이해초추립(皇明崇禎紀元後三十二亥初秋立)」이라 새겨져 있어 숙종(肅宗) 21년(年)(1695)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조 31년(1755)에 무덤을 순강원이라 명하고 지위를 승격시켰다. 또한 위패는 저경궁에 모셨으며, 순종 2년 역대 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의 생모인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칠궁(七宮)으로 포함되어 옮겼다.



순강원 정자각

1755년(영조 31)에 영조는 인빈김씨의 사우(祠宇)를 봉안하고 증축하려 하였으나 국법에 어긋나서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과 예관(禮官)을 불러 모아놓고 추숭(追崇)할 것을 토의하여 육상궁(毓祥宮)의 전례를 좇아서 사우를 저경궁(儲慶宮)으로 하고, 묘를 순강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그의 지위를 승격하였다.



순강원 전경



순강원 장명등과 봉분

그리하여 궁원(宮園)의 식례(式例)에 의거, 수호군(守護軍) 원호(元戶) 30명을 병조에 명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역사를 시작하였다.

3. 원주 소개

인빈 김씨[1555(명종 10)~1613(광해군 5)]는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후궁으로 본관은 수원(水原)이고, 아버지는 감찰 한우(漢佑)이며, 어머니는 충의위(忠義衛) 이성(李誠)의 딸이다.

명종의 후궁 숙의 이씨(淑儀李氏)의 외종(外從)으로 궁중에서 자라났는데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가 보고 기특히 여겨 선조에게 부탁하여 후궁으



순강원 비각

5년(1613) 10월 29일에 59세로 별세하였다. 사후(死後) 칠궁에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있다.

영조 때 시호를 경혜(敬惠), 궁을 저경(儲慶), 무덤은 순강원(順康園)으로 정하였다.

로 두게 하였다. 이때 나이 14세였다.

후궁 가운데에서 가장 왕의 총애를 받아 정원군(定遠君 : 元宗)을 포함, 4남 5녀를 두었다. 인빈(仁嬪)은 후궁이 되어 저경궁(儲慶宮)·인조의 잠저]에서 살았으며 광해군(光海君)

4. 인빈김씨즐기

《光海君日記》卷71, 光海君 5年 10月 29日(癸丑)

宣祖 後宮 仁嬪金氏 卒 [嬪生 義安 信城 元宗大王 義昌 四君及五公翁主 有術數 善於彌縫 弟 (金公亮)[金公諒] 以賤官 交結李山海父子 山海 遂以飛語 通于內間 讒大臣去之 自此嬪得干政之刺 而山海 亦爲士論所棄矣 王母恭嬪 素與仁嬪 有隙 及恭嬪 以産病卒而仁嬪代之 王兄弟寵遂衰 山海 讒大臣者 乘此機也 王兄弟因此甚怨 嬪家人亦爲嬪危之 及王在東宮 數失 宣廟 意 自大妃以下諸後宮 遇東宮多不敬 嬪獨厚事東宮 其所欲爲 皆密白 上遂之 柳永慶之攻 鄭仁弘 宣祖 方怒東宮 嬪爲伸理得解 及王卽位 起臨海之獄 嬪從中有力 故元宗 義昌 皆參定社功臣 王

嘗曰 吾受庶母恩 得保今日 義不敢忘 是以終嬪之世 元宗 兄弟皆無恙]

5. 관련 기록

이금익, 《燃藜室記述》 卷22, 元宗故事本末

경혜 인빈(敬惠仁嬪) 김씨는 감찰(監察) 한우(漢佑)의 딸이며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을묘년에 태어나서 계축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는 59세였다. 궁의 칭호는 저경(儲慶)이고, 어머니는 이씨인데 충의위(忠義衛) 효성(孝性)의 딸이다. 무덤은 순강원(順康園)이다. [양주(楊州) 풍양리(豐壤里)에 있는데 자좌오향(子坐午向)이다.]

○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대례(大禮)를 거행하던 날에 여러 후궁들이 불평한 기색이 많았으나, 유독 인빈(仁嬪)만은 말과 얼굴빛도 태연하였고, 임금에게 곤룡포를 받들어 올릴 때에도 좌우에서 시중들면서 특별히 기쁜 일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공사견문(公私見聞)》]

○ 인빈은 임금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 네 왕자와 다섯 옹주(翁主)를 낳았다. 자녀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면 인빈은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 불안히 여기면서 “나라가 불행하여 중전께서 왕자와 공주를 낳지 못하고 내게 자녀가 있음은 다만 나의 배를 빌려서 낳은 데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내가 어찌 감히 그대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으리오.” 하고, 또한 감히 너라고 부르지 않았다. [《공사견문》]

○ 선조의 중년(中年)에 김공량(金公諒)이 인빈의 오빠로서 임금의 두터운 종애를 받으니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도 조관(朝官) 한 사람이 더욱 지나치게 친하니 구성(具晟)이 마음속으로 그 하는 짓을 미워하

였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대각(臺閣)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사람을 탄핵할 것이다.” 하니, 조관(朝官)이 구성을 빼에 사무치게 원망하여 김공량을 시켜 증상모락을 꾸몄다. 이에 선조(宣祖)가 구성이 혹시 훗날에 인빈 자손들에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하여 이때 정원군으로 있던 원종(元宗)을 드디어 구성의 누이동생의 배필로 삼았는데 이가 인헌왕후(仁獻王后)이다. 후에 인조(仁祖)가 왕위에 오르자 구성의 자제들은 훈척(勳戚)으로서 여러 대로 세력이 혁혁했으니 그 까닭을 따져보면 모두 조관(朝官)이 구성을 증상하려고 계책한 것이 도리어 영화가 되었으니 재앙과 복이 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공사견문》]

○ 과거에 명종이 늦도록 대를 물릴 아들이 없으므로 문정대비(文定大妃)가 매우 걱정하였는데 어느 날 저녁 꿈에 이인(異人)이 고하기를, “상주(尙州)의 이 아무개가 딸이 있는데 궁중에 들여오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꿈을 깨어 사람을 시켜 물색했으나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는데 문득 한 승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가리켜 주어, 드디어 찾아서 후궁에 들였으니 바로 이숙의(李淑儀)였다. 숙의는 끝내 아들이 없었으나 인빈은 그(이숙의)의 외종(外從)으로서 궁중에서 길러졌는데 인순왕후(仁順王后)가 보고 기특히 여겨 선조에게 부탁하여 후궁으로 두게 했는데 이때 나이 14세였다. 뒤에 4남 5녀를 낳아 길렀는데 원종도 인빈이 낳았다.[《계곡집》]

○ 저경궁(儲慶宮)은 승례문 안에 있었다. 옛날 명칭은 송현궁(松峴宮)이고 본래는 인조의 잠저(潛邸)였는데 영조 을해년에 인빈의 신위를 봉안(奉安)하고 궁(宮)과 원(園 무덤)의 칭호를 정하며 시호를 정하도록 명령하여 곧 거행하니 시호를 경혜(敬惠)라 하고, 궁은 저경(儲慶宮)이라 하고, 원은 순강(順康)이라고 정하였다. 축문(祝文)에는 선비(先妣)라 쓰고, 임금이 친히 제사지내고 성묘할 때는 백관이 예를 행하였다.

6. 인빈김씨신도비명

張維,《谿谷先生集》卷13, 碑銘 仁嬪金氏神道碑銘[并序]

崇禎六年冬十有一月 上命臣維若曰 自予受封有國 于今且一紀矣 仁嬪墓道顯刻闕焉 非緩也 蓋有待也 今將樹樂石 爾其銘之 臣承命祇慄 謹按金氏本出水原 考諱漢佑 司憲府監察 妣李氏 忠義衛孝性之女 以嘉靖乙卯二月甲午 生嬪 幼有異質 婉婉靚穆 迥出倫類 雖當游戲 不違女則 表姊淑儀李氏 明廟後宮也 取嬪養于宮中 仁順王后見而異之 屬宣祖大王備後庭 時年十四歲 嬪自受內職 承上以敬 涖下以恕 睿眷彌隆 飭身愈謹 宮中翕然稱美 以爲儀則 萬曆癸酉 賜號淑媛 序陞貴人 懿仁王后弗豫 嬪躬侍藥餌 日夕不離側 及上仙 自含襲斂殯 凡禮之在內者 嬪悉司焉 舉無愆違 丙午 進爵仁嬪 戊申 宣廟昇遐 嬪哀毀踰制 過三年 出居私第 屏去華飾 笑不見齒 恒以未卽下從爲隱痛 時節子姓或備禮設壽席 而未嘗以爲權 癸丑十月某日 以疾卒 春秋五十有九 是歲十二月某日 葬于楊州豐壤里子坐午向之原 嬪天資溫粹 婦德淳備 承宣廟恩渥四十年 自持卑遜 終始不爽 平生無疾言遽色 雖娛隸之微 不以惡言詬詈 親疏貴賤 各得其心 方光海無道 宣廟支屬 咸惴惴危懼 不保朝夕 而嬪處之有方 光海亦敬服 終嬪之世 不敢加以禍患 嬪旣卒 而綾昌之獄作矣 嬪育四男五女 男長曰義安君城 未娶夭 次信城君珩 娶漢城府判尹申砬女 次卽元宗大王 次義昌君珖 娶某官許箴女 女長曰貞慎翁主 適達城尉徐景霄 次貞惠翁主 適海嵩尉尹新之 次貞淑翁主 適東陽尉申翊聖 次貞安翁主 適錦陽尉朴瀾 次貞徽翁主 適全昌君柳廷亮 元宗大王初封定遠君 配連珠郡夫人具氏 議政府左贊成思孟之女 誕三男 長卽我殿下 次綾原大君備 娶柳氏女 坐其父累 奪封爲妾 次綾昌君佺 少有儁才 爲光海所忌 被誣以謫卒 光海昏虐日甚 幽囚母后 毒痛萬

民倫紀數絕宗社將危至天啓癸亥我殿下因中外之望撥亂反正奉大妃復位大妃命殿下承大統乙丑夏皇帝遣太監王敏政胡良輔冊封國王賜誥命冕服初追尊定遠君爲定遠大院君連珠郡夫人進府夫人久之追上大院君尊號曰元宗敬德仁憲靖穆章孝大王夫人曰敬懿貞靖仁獻王后請命于皇朝天子下制追封賜王諡曰恭良於是上命有司仁嬪祠廟每忌辰節日官供祭具又置守冢十五名于墓所殿下聘王妃韓氏領敦寧府事浚謙之女誕生王世子某次鳳林大君溟次麟坪大君潛世子聘判書姜碩期女爲嬪鳳林娶新豐君張維女麟坪幼未婚信城君有一女適典籍安弘量達城尉有三男五女男曰貞履縣監正履慎履學生女適進士金珪次適直長李命寅次適學生沈伉次適佐郎權堦次幼海嵩尉有二男曰墀文科水原府使丘文科修撰東陽尉有五男四女男曰冕生員昇進士炅最高學生女適洗馬洪命夏次適學生姜文斗次適生員金佐明次幼錦陽尉有一男世橋學生全昌君有二男二女男曰滄參奉洽學生女適進士李重揆次幼安弘量有二男一女男曰鉞曰某女適韓以成徐貞履有一男一女金珪有一男弘錫進士李命寅有三女沈伉有二男曰之游之泳權堦有二女尹墀有一女適學生金益兼申冕有一男昇有一男一女炅有一女最有一女洪命夏有一男一女姜文斗有一男金佐明有一女朴世橋有二女柳滄有二男二女李重揆有一男臣維竊觀天人合應之理似微而實顯以仁嬪之柔嘉懿範上承宣祖盛德克迓天休篤生聖子神孫光啓中興赫業跡其所以臻斯盛者夫豈無自而然哉易稱視履考祥又曰自天佑之吉無不利以今驗之理有不可誣者猶歟休哉始明廟晚而無嗣文定大妃憂之甚一夕夢異人告之曰尙州李某有女子納之則吉覺而使人物色之不能得忽遇一僧指其所居遂得之納于後宮是爲李淑儀淑儀竟無子而仁嬪實因淑儀得進厥後嗣續昌大五廟之統卒有所歸文定當日之夢殆天之啓衷乎臣旣敘次如右系之以銘曰

曜炳靈 昭質挺世 蘭芳玉潔 明詩服禮 青規密侍 彤管自飭 居寵若驚 履泰彌約 惟和惟順 協于下上 神之聽之 百福來嚮 錫以祚胤 既蕃且仁 螽斯蟄蟄 麟趾振振 聖子篤祐 神孫膺命 宗祀重光 彝倫再正 遠矣餘慶 式至今休 于邦于家 本支同庥 豐岡鬱蔥 有石崇崇 刻此銘詩 永示無窮

申欽,《象村稿》卷27,神道碑銘 仁嬪金氏神道碑銘[并序○餘稿]

仁嬪金氏既卒之十一年 我殿下受命踐阼 越五年丁卯 命樹麗牲之石於仁嬪墓道 敎臣申欽紘之 臣欽謹拜手稽首而言曰 若稽金氏 自出水原 考曰漢佑 司憲府監察 妣曰李氏 忠義衛李誠之女 嘉靖乙卯二月甲午生嬪 稟有淑質 與倫類殊 婉婉靚穆 已著於弄瓦之日 雖爲游戲 不違女則 表姊李氏爲明廟後宮 取養于宮中 時年十四 仁順王后一見輒異之 屬宣祖大王 備後庭 嬪目受內職 益兢兢飭已 承上以敬 莅下以恕 居寵而畏 臨事而謹 令聞徽赫 壺闕之中爲式焉 萬曆癸酉 賜號淑媛 序陞貴人 庚子 懿仁王后不豫 嬪日侍側夔夔 躬調藥餌 久而彌勤 及上仙 含襲服殮以泊于殯 嬪俱司之 率禮無愆 丙午 進爵爲仁嬪 戊申 宣祖大王陞遐 嬪哭擗哀毀 有踰於制 過三年出居私第 癸丑十月 邁疾棄養 春秋五十有九 是年十二月 卜楊州豐壤里子坐午向之原窆焉 從亡子兆也 嬪有四王子五翁主 王子長曰城 義安君 未娶而夭 次曰珣 信城君 娶漢城判尹申砬女 亦早歿 女一人 安弘量 次曰瑋 定遠君 娶贊成具思孟女 封連珠郡夫人 次曰珽 義昌君 娶吏曹判書許箴女 無子 翁主長曰貞慎翁主 適達城尉徐景霽 次曰貞惠翁主 適海嵩尉尹新之 次曰貞淑翁主 適東陽尉申翊聖 次曰貞安翁主 適錦陽尉朴瀾 次曰貞徽翁主 適全昌尉柳貞亮 定遠君有三男 惟我主上殿下居冢子之位 見光海當宁 幽囚母后 殄滅倫紀 虐害黎元 中外離心 宗社之危 僅如一髮 癸亥春 因臣民之望 撥亂反正 克奠神天 乙丑夏 皇帝差詔使太

監王敏政 胡良輔冊封 降誥命冕服以章之 我殿下考據典禮 追崇定遠君爲定遠大院君 連珠郡夫人爲連珠府夫人 墓號興慶園 聘領敦寧府事韓浚謙女爲妃 誕生世子諱 大君三人 曰溟 鳳林大君 曰潛 大君 曰滾 大君 世子聘承旨姜碩期女爲嬪 其次備 綾原君 娶□□□□□□ 其次佺 綾昌君有僞才 爲光海所忌 年十七被誣謫卒 人皆冤傷之 達城有三男五女 男曰貞履 直長 其餘幼 女曰金珪 死於癸丑之獄 有一男曰弘錫 次日沈伉 有二男 次日李命寅 有一女 次權堦 次幼 海嵩有二男 曰墀 弘文館應教 曰丘 進士 東陽有五男四女 男曰冕生員 曰昇 曰昷 餘幼 女曰洪命夏 有一子 餘幼 錦陽有一男曰世橋 全昌有二男二女 男曰滄進士 次日洽 嬪溫而粹 塞而淵 寬而厚 柔而順 承宣廟恩過四十年 持以卑巽 終始不忒 疾言遽色 不形於容儀 絮語詈罵 不施於奚史 親疏貴賤 咸得其心 葆厥德美 嚮周福履 螽斯麟趾 莫不艷慕 宣廟服闋之後 屏華去飾 笑不見齒 居恒稱未亡人 唯以不遘死爲痛 佳辰令節 子姓來寧 或時奉觴上壽 未嘗以爲歡 戊申以來 世道大變 宣廟支屬 俱惴惴不保朝夕 而顧嬪當無道之時 處之有方 雖光海 終嬪之世不敢加以禍患 嬪之卒而綾昌之獄作矣 嗚呼傷哉 仁心仁聞 在人耳目 理不終泯 命亦靡常 天其茂貯休祥 鸞佑我邦家 光啓中興之熙運 而思齊之烈 實爲有開之先歟 臣謹繼之以銘曰

天鍾異質 昇德泊貴 以順承之 仁經禮緯 睿眷方隆 寅畏小心 壺範宣昭 上嘉下欽 銀潢派遠 玉葉芳敷 惟我聖明 誕膺貞符 彝倫復敘 宗社再康 衛烈寔彰 永詔無疆 蔚彼佳城 在國之東 衆靈輿衛 有碑斯豐 臣拜稽首 綴以銘旆 本支百世 日月長鮮

7. 인빈상시죽책문

李天輔, 《晉菴集》 卷8, 冊文 敬惠仁嬪上諡竹冊文

衍景祉於萬世 緬懷懿規 修曠典於百年 聿陳顯冊 敢云彰美 祇由伸誠
恭惟仁嬪飭行端貞 稟性溫粹 夙齡膺名家之選 叶異夢於長秋 哲範播六宮
之譽 贊柔化於樛木 處福綏而若懼 益迓休吉之來 履艱危而終亨 寔著和
順之積 惟毓慶誕裕邦國 故錫羨乃昌本支 聖子承床 載垂燕翼之烈 神孫
御極 果符龍飛之祥 基祚靈長 實資啓佑之遺澤 年代夔邈 詎忘淑嘉之餘
徽 顧典禮亶合於致隆 而表章猶闕於考德 香火替奉於私第 曷勝永慕之懷
儀文未違於列朝 宜有追報之道 昨歲修章陵之舊邸 夫豈偶然 前春拜豐壤
之故岡 尤有感者 宮園揭號 援近例於顯親 祠廟增輝 慰神理於移享 是謂
若待今日 庶幾無憾此心 上諡號曰敬惠 伏惟冀鑑微衷 俯賜昭格 紀蹟彤
管 垂芳猷於簡編 流慶瑤圖 降冥隲於宗

여 백

휘경원(徽慶園)

1. 연혁

원 주 : 순조 사친 수빈(綏濱) 박씨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지정번호 : 사적 제360호
봉원연대 : 1823년(순조 23)
전원연대 : 1855년(철종 6), 1863(철종 14)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조선 22대 정조(재위 1776~1800)의 후궁 수빈 박씨(1770~1822)의 무덤이다. 수빈 박씨는 숙선옹주를 낳고 수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정조 14년(1790)에는 왕자 순조를 낳았다. 순조 22년(1822)에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2월 27일 장례(葬禮)하였다. 철종(哲宗) 6년(1855)에 순조(純祖)의 능(陵)인 인릉(仁陵)의 천장지(遷葬地)를 구하면서 휘경원(徽慶園)도 천장하기로



휘경원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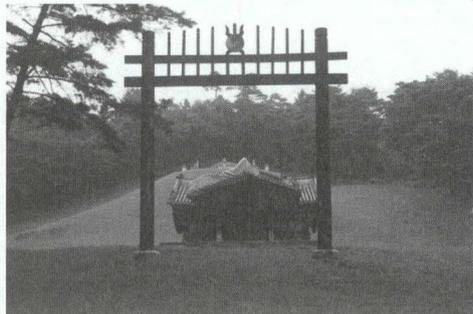
하여 순강원(順康園)(양주군 진접면 내각리)으로 옮겼다가 동 14년(1863) 5월 풍수지리상(風水地理上)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다시 현위치(現位置)로 재천장하였다. 수빈박씨(綏嬪朴氏)의 위패(位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칠궁(七宮)안 경우궁(景祐宮)에 봉안하고 있다.

그런데 1907년에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慶嬪金氏)가 죽자 그 묘소를 수빈 박씨의 묘소가 있는 휘경원 경내 서쪽 기슭에 정한 뒤 산역(山役)을 시작해 장례를 치렀다. 여기에서 묘소의 명칭도 수빈 박씨의 원호(園號) 그대로 휘경원이라 부르게 되었다.

당시의 상설(象設)로는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양석(羊石) 1쌍, 표석(表石)·제각(祭閣) 등이 있었다. 또한 휘경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令, 종5품) 1인과 참봉 1인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현재는 혼유석과 표석만이 남아 있다.

원(園) 시설은 봉분(封墳) 곡장(曲牆) 혼유석(魂遊石)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 문인석(文人石) 석마(石馬) 석양(石羊) 사초지(莎草地) 등이 있으며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을 갖추고 있다.

묘비(墓碑)는 세워져 있지 않고 정자각(丁字閣) 앞에 비(碑)를 세웠는데 비(碑)의 전면(前面) 비명(碑銘)은 ‘유명조선국현목수빈 휘경원(有明朝鮮國顯穆綏嬪徽



휘경원 전경



휘경원 근경

배봉산묘좌원원호휘경당우육년을묘시월팔일천봉우양주순강원후강간좌
 십사년계해오월팔일천봉우양주달마동임좌향원 승정기원후이백삼십육년
 월 일’(英宗四十六年庚寅五月八日誕生正宗十一年 丁未宣敎命爲綏嬪賜宮
 號嘉順十四年 庚戌誕純祖二十六年
 任午十二月二十六日厭代? (破損) 五
 十三上諡顯穆癸未二月二十七日葬
 于楊州拜峰山卯坐原園號徽慶堂于
 六年乙卯十月八日遷奉于楊州順康
 園後岡艮坐十四年癸亥五月八日遷
 奉于楊州達摩洞任坐向原 崇禎紀元
 後二百三十六年 月 日)’

慶園)’이라 새겨져 있고 후면의 비
 문(碑文)은 다음과 같다. ‘영종사십
 륙년경인오월팔일탄생정종십일년
 정미선교명위수빈사궁호가순십사
 년 경술탄순조이십육년임오십이
 월이십륙일염대? (파손) 오십삼상
 익현목계미이월이십칠일장우양주



휘경원 비각

3. 원주 소개

수빈 박씨[1770(영조 46)~1822(순조 22)]는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의
 후궁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좌찬성 준원(準源)의 딸이며, 어머니는 원

주 원씨(原州元氏)이다. 그가 잉태될 때 어머니 원부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큰 구슬을 바치매 그 광채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한다.



뒤에서 바라 본 휘경원

어릴 때 두 여형(女兄)과 함께 있었더니 별안간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뜰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두 여형은

놀라서 넘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으나, 그는 조용히 걸어가서 방안으로 들어가니 모두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다.

1787년(정조 11)에 정조의 빈이 되어 순조와 숙선옹주(淑善翁主)를 낳았다. 왕자를 낳은 뒤 왕자를 낳지 못하는 왕비를 위로하고 공경하니 온 궁중에 화기(和氣)가 가득하였다.

또한 행실이 착하고 예절이 바를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이 적으며 의복과 일상용품들을 극히 검소하게 하니 조야에서 현빈(賢嬪)이라는 칭송이 자자하였다.

어느날 그의 궁에서 시중을 드는 내인(內人)이 의복을 만들 때 작은 천 조각을 버렸다가 크게 꾸중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 또한 후궁인 그의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자 아침하는 무리들이 그에게 은밀히 귀중품을 진상하였다가 의금부에 잡혀간 일도 있었다. 창덕궁 보경당(寶慶堂)에서 죽었다.

궁호(宮號)는 가순(嘉順), 시호는 현목(顯穆), 원호(園號 : 무덤의 명칭)는 휘경(徽慶)이며, 효자동 경우궁(景祐宮)에 제향되었다.

4. 휘경원지문

《純祖實錄》卷 26, 純祖 23年 2月 3日 癸卯 徽慶園 誌文

嬪姓 朴氏 系出 潘南 斯盧王之裔也 有諱 尙衷 高麗 恭愍王 時 以道義顯 學者稱之曰 潘南 先生 本朝追諡 文正 有子曰 嘗 入本朝 官左議政 諡 平度 五轉而有諱 紹 號 冶川 學問文章 爲時名儒 贈領相諡 文康 自是以來 蟬聯赫奕 代有名宦 派分支列 咸爲顯族 五世祖諱 世城 當 肅宗 時嘗斥 尹善道 權認 官至左副承旨 贈吏參 高祖諱 泰遠 牧使贈吏參 曾祖諱 弼履 贈吏判 祖諱 師錫 縣令 贈左贊成 考諱 準源 號 錦石 判敦寧府事 贈領相 諡 忠獻 妣 原州 元氏 贈參判 景游 女 原平府院君 斗杓 五世孫 嬪其第三女也 嬪以 英宗 庚寅五月八日 生 正宗 丁未被選 嬪 號曰 綏 宮號曰 嘉順 今上殿下二十二年壬午十二月二十六日 厭代于 昌德宮 之 寶慶堂 壽五十有三 有司上節惠日 顯穆 園號曰 徽慶 明年二月二十七日 葬于 楊州 拜峰山 坐卯原 寔 永祐園 舊基之左也 誕一男今 殿下 一女 淑善翁主 下嫁 永明尉 洪顯周 殿下 二男 長卽世子邸下 次不 育 三公主 長封 明溫 一翁主 初 元夫人 夢 老人跪獻一大珠 光彩滿室 旣而生嬪 幼有異質 兒時與二女兒 同坐 有虎突至庭 二兒皆驚仆啼哭 嬪 獨徐步入戶 若無所見 人皆知其不凡 文孝 旣卒 先王春秋已晚 孝懿后 及和嬪諸御 皆無育 上 憂甚復揀名媛 而嬪居第二 及三揀 遂膺首選 上 爲告廟 修聘 宣誥 且蓋仗迎入行 禮貌之盛 古未有也 常曰 是不可與 他嬪御同視 當有以別之 及庚戌有慶 上遇愈重 嬪猶謙慎寅畏 事 孝懿 惟謹 處同列愈和 宮中咸稱其賢 殿下嗣位 志物之養漸備 己巳 世子生 殿下追惟先王之遺志 推原啓發之濬祥 命賤臣論於庭 於是 時原任大臣筭 請隆奉 而禮官議 群臣稱邸下 時節慶賀 中外奉箋獻方物如儀 嬪曰 是雖

聖孝所及 於心大不安也 前年秋季 忽有風痰之祟 殿下命藥院 設直宿 已而少愈 撤直 請賀 嬪力辭於殿下 寢之 然患候輾轉沈飢 遂及不諱 竟貽我殿下終天之慟 悲夫 殿下遵古禮服緦 治喪事儀節 多像生 殯于 歡慶殿 御筆改園官號爲參奉 命有司葺都摠府 將返虞 於是以寓居廬奠饋之義 廷臣多言不可 殿下堅不撓 蓋聖心以爲 喪服者 禮之大防 而人君之尊 固不敢以踰名位者 歷代之背經而見譏於後世 皆不得爲而不可爲者也 若其儀文節度之間 得爲而不爲者 非所以皎於心 雖創之於今 未爲汰也 臣竊惟傳 言非王者 不議禮不考文 李宸妃之喪 殯(斂)[斂]勸用后儀 而 朱文公載之 名臣言行 我殿下處考文議禮之地 折衷斟酌 起於義而合於情 守經達權 自盡崇報之道 斯義也 聖賢復起 必不易矣 于以見大聖人所作爲 出尋常萬萬也 殿下以玄室之誌命臣 而嬪常言 婦人安用誌狀 我身後無庸下行錄爲也 故其日用常行之 可以炳彤管而耀青簡 無從而細考 然其德盛而功大 塗耳目而莫掩者 僅述一二 嬪性度明達莊重 平居寡言笑 御下恩而有嚴 服开器用 不貴珍奢 奉 惠嬪 克盡孝順 事先王罔有違言 養殿下衣服常用浣濯 教導必以義方 而自庚申後 至今二十餘年 保護聖躬 洞屬如不及 日而忘膳 宵而忘寢 至於勞瘁而不自恤 夫孰無止慈之情 憂國之念 而一(段)[段]血誠苦心 可以格神明而貫金石者 歷論千古 殆惟嬪而已 噫 德有以冠六宮 功有以基萬世 非秉筆者所敢私 卽八域含生之所共誦也 曷不休矣 臣昔以簪筆之任 恭睹入宮之盛儀 尙記當日我先王歡喜之色 嘉褒之音 歷歷如隔晨 而[老]白首不死 復值我殿下哀違號賞之日 忘其僭陋 猥進幽刻之辭 俯仰今昔 不覺涕淚之沾襟云[領敦寧 金祖淳 製]

5. 綏嬪朴氏諡册文

《純祖實錄》卷 26, 純祖 23年 2月 3日 癸卯

禮有限於厭屈 今日曷爲予懷 德莫大於劬勞 昊天欲報罔極 肆稽節惠之典 庸崇賁終之規 豈云顯揚 惟切掩抑 伏惟 綏 嬪邸下行循嘉則 姿凝順思 藍珺久胚 鍾善慶 於華閼 蘭薰在襲 諷淑聞於芳閨 娠夢既驗於獻珠 兆若先於懷日 幼儀無怖於見虎 奇不啻於當熊 發册問名 是膺皇考禮揀之盛 封爵賜號 俾踵君子福履之綏 遂長發於殷祥 迺永錫乎周胤 棣郊遲於降乙 國勢幾凜綴旒 堯 門闕於維庚 宗脈實賴繇眇 極歡愛於三殿 亶爲存儆而含和 爭頌美於六宮 莫不仰耀而薰德 嗚呼 涖灘之降割 閔予冲年之多難 梧雲莫攀 痛眞遊之寢邈 草暉偏煦 荷慈恩之愈隆 常勤疾憂而保護之是恃 或遇災咎則警誨之有諄 三朝見七章之隨 縱慰含飴之念[卅]載致千乘之養 猶歎洗腆之誠 [卅]來感悴之崇深 采懷喜懼之忱切 先君之思以勛 雖哀茶沈淹之罔間 人子之心無窮 惟耆艾康寧之是祝 遐籌漸躋於耳順 將爲春秋八千 愆度比喜於翼彥 願如岡陵松柏 方期壽母之興詠 遽驚寶婺之淪精 齊疏未闕於三年 狄臯又慘於一夕 愴孺慕而靡逮 東殿仍[虛]廓慈覆而何依 北堂俄闕 卜茲履露之舊域 想神理之大安 寓我終天之至哀 幸瞻展之孔邇 苟無懿嫩之亟述 可奈音徽之長違 輿衛備厥 [親]喪固所自盡 典册斯具 舊章率由不忘 篤實輝光 顯是名行之昭著 端莊齊整 穆爲德美之兼全 謹遣使臣 上尊諡曰 顯穆 尙冀明靈 俯諒微悃 欵遠日之倏屆 休範詎闕於玄扃 庶來世之永垂 流芳增煒於彤管[戶曹判書 沈象奎 製]

6. 綏嬪朴氏哀册文

《純祖實錄》卷 26, 純祖 23年 2月 3日(癸卯)

畫旌啓塗 雕輜肅軻 犧罇既撤 蜃衛將進 違紫闈而徐引 指玄室而漸遠
惟我主上殿下 攀號靡逮 摧慕采新 慟此日之終天 念厚夜之莫晨 爰命瑤
臺而紀績 俾鑄寶牒而恭陳 其辭曰 潘南 靈緒 世襲圭組 彬鬱名碩 華赫
門戶 寧考在宥 儲位久缺 廣求哲媛 于彼顯閭 嬪於是時 光膺揀擇 迺徵
迺幣 殊禮曠昔 性度淵懿 神襟蘭郁 三朝殿宮 瑜佩雖然 書紳女則 率行
無愆 深荷天眷 仰贊坤化 終始一德 令聞遠播 太歲在戌 無疆邦祿 慶溢
區宇 功存宗祏 遇泰益謙 小心翼翼 奄遭天崩 慟纏晝哭 歸侍玉欄 常願
其速 然猶抑情 保護聖躬 疾恙飲食 寒暑雨風 造次不弛 一念憧憧 運回
十一 謠騰四重 喜深繞膝 歡均延頸 昕夕怡愉 娛茲晚景 孝心所推 志物
備養 一國隆奉 六宮慕仰 无妄一疾 乍瘳旋添 胡昔祝之岡壽 僅五旬而踰
三 羌冥漠其若茲 竟難追於德音 嗚呼 哀哉 一人悲疚 千官悽愴 歲籥倏
換 卽遠而葬 服麻縵於三月 遵古聖之定制 耀竹册於千載 節臺惠而爲謚
珠襦兮香歇 鏡奩兮塵委 風簾動而蕭瑟 夜臺邈而悽悲 瞻寶鬕之逶迤 去
復去兮無歸 訪瑤池兮玉馬 響躡銀渚兮金鶴飛 異平生之慈顧 非昔時之瞻
依 嗚呼 哀哉 路出青門 佳城新得 青烏 告吉 玄龜協卜 信山明而水麗
發地秘與天作 百靈呵禁 松栢蔥鬱 庶體魄之安安 綿景祿於瓜瓞 嗚呼 哀
哉 賢而無壽 難諶者天 原有始則有終 自古亶而已 然惟懿德之在人 載彤
管而不朽 猗 芳烈之闡揚 傳百世而永久 嗚呼 哀哉[判府事 南公轍 製]

흥원(興園)

1. 연혁

원 주 : 현의대원왕(獻懿大院王)과 순목대원비(純穆大院妃) 민씨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지정번호 : 경기도기념물 제48호

봉원연대 : 1898년(광무 2)

전원연대 : 1906년, 1966년

원묘형태 : 단묘

2. 원 소개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46번 경춘국도를 따라 춘천쪽으로 가다 보면 남양주시청을 지나 서울리조트를 끼고 있는 마석고개를 넘어가게 된다. 마석고개를 넘어 화도읍 마석우리 읍내로 들어가서 마석우천을 따라 삼일제재소를 찾아가면 흥선대원군 입구를 알리는 조그만 현판을 찾을 수 있다. 현판을 따라 산길을 올라가면 텃밭으로 바뀐 흥선대원군묘 입구에 이르는데, 여



흥원입구 표지석과 철문

기서 산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흥선대원군의 무덤인 흥원을 만날 수 있다.

흥원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묘로 원래 처음 1897년에 경기도 고양군에 모셔졌으나, 1906년 경기도 파주군으로 옮겨졌다가, 1966년 4

월 지금의 자리로 다시 옮겨졌다. 묘역은 조선시대 능원제도(陵園制度)를 따르는 듯하나, 대군에 맞도록 간략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상하 2단으로 나뉘어졌다.

상단에는 호석으로 둘러싸인 단분(單墳)인 봉분과 그 둘레에 석호(石虎), 석양(石羊) 각 1쌍이 있고, 그 바깥에 곡담과 사성이 둘러쌓여 있으며, 묘 앞에는 상석이 있다. 하단에는 망주석, 문인석, 석마(石馬)가 좌우에 각 1쌍이 있고, 묘 앞 중앙에는 방형의 장명등이 놓여져 있다.

3. 원주 소개

흥선대원군[1820(순조 20)~1898(광무 2)]의 이름은 이하응(李昰應)이고, 자는 시백(時伯), 호는 석파(石坡)로 대원위대감(大院位大監)이라고도 불렸다. 아버지는 영조의 현손 남연군(南延君) 구(球)이며, 아들은 조선 제26대 왕 고종이다.

1841년(헌종 7) 흥선정(興宣正)이 되었고, 1843년



흥원 표지석



흥원 입구에 서 있는 신도비

흥선군(興宣君)에 봉해졌다. 1846년 수릉천장도감(綬陵遷葬都監)의 대존관(代尊官)이 된 뒤 종친부 유사당상·사복시제조·오위도총부도총관 등의 한직을 지냈다. 안동김씨의 세도정치하에서 그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시정의 무뢰한들과 어울려 난행을 일삼으면서, 한편으로 후사(後嗣)가 없는 철종의 유고시에 대비하여 조대비(趙大妃)와 가까이 지냈다. 1863년 12월 철종이 죽자 둘째 아들 명복(命福 : 고종의 아명)이 조대비에 의해 왕위에 올랐고, 자신은 흥선대원군으로 진봉되었으며 조대

비에게 섭정의 대권을 위임받아 서정(庶政)을 총괄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조대비와의 동맹관계 및 김병학(金炳學)·김병국(金炳國) 등 안동김씨 일부 세력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권 후 김병기(金炳冀) 등 일부 안동김씨 세력을 축출하기도 했지만, 안동김씨를 중심으로 한 권력층의 명문 양반가를 포섭하면서 양반지배층 내부에 존재하는 각 당파에 관직을 안배하여 세력균형 속에서 정권을 유지해나갔다. 이와 함께 세도정권기를 거치면서 실추된 왕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종친(宗親)과 선파인(璿派人) 등 왕족을 집중적으로 발탁하여 재정·군사·경찰 등 권력의 핵심부분에 등용했다. 총명하고 재주 있는 중인계층을 선발하여 각 조(曹)에 집리(執吏)로 배치하고, 의정부에는 팔도도집리(八道都執吏)를 배속시켰다. 제도면에서



흥원 전경



흥원 장명등과 봉분

는 권력체제의 골간인 중앙정치 기구 개편에 착수했다. 1864년 1월 세도문벌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는 장으로 활용되던 비변사의 기구를 축소하여 중외(中外)의 군국사무(軍國事務)만을 관장하게 했다. 대신 의정부가 정부의 모든 사무를 주관하게

하고, 조두순(趙斗淳)과 같이 삼정문란(三政紊亂)을 수습해갈 수 있는 인물과 홍순목(洪淳穆) 같은 친대원군계 인물로 의정부를 구성했다. 이듬해 3월에는 정부와 비변사를 합치고 비국(備局)을 정부의 한 부서로 만들었으며, 1868년 축소된 비변사를 대신하여 군국사무를 전담할 군령기관으로 삼군부(三軍府)를 복설(復設)했다. 또한 훈련도감을 정비하여 세도문벌의 군사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정지시키고 실질적인 군영으로 재건했으며, 국왕의 친위병인 용호영(龍虎營)도 정비하여 병조판서가 통할하게 했다. 또한 <대전회통(大典會通)> · <양전편고(兩銓便攷)> ·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편찬 간행하는 등 법전 및 운영규칙을 정비했다. 한편, 유교질서의 재확립을 위해 이단사상을 탄압하여, 동학교조 최제우(崔濟愚)를 처형하고 천주교도를 박해했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경복궁 중건사업을 했으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거목(巨木) · 거석(巨石)을 징발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원납전(願納錢) 징수, 결



흥원 문인석



뒤에서 바라본 흥원 모습

두전(結頭錢) 부가, 성문세(城門稅) 부과, 당백전(當百錢) 주조 등을 했다. 이어 종묘·종친부·6조 이하의 각 관서와 도성까지 수축함으로써 한양의 면모를 일신했다. 그리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양반들의 세력확장의 기반이

각각 경제적 폐단의 온상이었던 서원 정리에 나섰다. 1864년 8월 서원 보유 토지의 면세를 축소하고 소속노비의 신분을 변정(辨正)하여 군포 수입을 늘렸으며, 이듬해 3월에는 만동묘(萬東廟)를 철폐했다. 1868년 서원에 정원 이외로 끼어든 자를 골라내고 서원 전결에 세금을 내도록 했으며, 수령이 서원의 장이 되어 사무를 주관하게 했다. 이어 1871년 3월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 하더라도 1인 1원(院) 이외 첩설(疊設)한 것은 모두 철폐하게 하여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을 모두 없애버렸다. 서원의 철폐로 국가재정은 확충되었으나, 지방 양반들과 유생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후일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대원군은 1862년(철종 13)에 발생한 임술농민항쟁의 원인을 삼정문란으로 파악하고 삼정을 개혁함으로써 농민의 불만을 수습하려 했다. 우선 전정(田政)에서는 조세지의 확보를 위해 진전(陳田)이나 누세결(漏稅結)을 색출했으며, 문제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 양전(量田)을 시행하여 새로운 양안(量案)을 만들고 수세결도 늘렸다. 군정(軍政)에서는 전주민에게 균일하게 세를 부과하는 호포제(戶布制)를 시행했다. 호포제는 양반도 호포세를 내는 것으로 양반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시행됨으로써 상민은 부담액이 줄었고 신분적 평등의식도 고취되었다. 환곡문제는 1862년 삼정이정책에서

결정되었던 파환귀결(罷還歸結)이라는 근본적 개혁안을 채택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허류곡(虛留穀) 120여 만 석을 탕감하고 재정확보의 자원에서 호조별비곡(戶曹別備穀)·병인별비곡(丙寅別備穀) 등 새로운 환곡을 마련했다. 환곡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사창제(社倉制)를 도입하여 관리들의 간여를 금지하고 민간에게 운영을 맡겼으나, 고리대화한 환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될 수 없었다. 그밖에 국가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포량미(砲糧米)를 신설하고, 도성의 문세(門稅)를 징수했으며, 궁방(宮房)이나 포구 주위의 유력자들이 불법으로 부과하던 각종 사세(私稅)를 혁파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재정에 편입시켰다. 또한 경복궁 중건과 병인양요에 소요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당백전을 주조하고 청나라 화폐인 청국소전(淸國小錢)을 강제로 유통시켰는데, 이는 물가를 폭등시킴으로써 상민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향촌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토호의 무단(武斷)을 철저히 탄압했으며, 궁방전(宮房田)도 세금을 내게 했다. 또 민폐가 많던 도장(導掌)·궁차(宮差)의 파견을 금지하고, 신설 궁방에 토지 지급을 폐지하는 등 궁방에 대한 억제정책도 시행했다. 반대세력의 억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령의 구임(久任)을 강조하는 한편, 수령에 대한 고과(考課)를 엄격히 하고 수령 재임시의 부정을 살피기 위해 해유문기(解由文記)의 작성도 철저히 했다. 또한 향리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여 조세횡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무연한에 따라 서리들을 입역(立役)하게 했다.

1866년 8월 천주교도 박해를 구실로 쳐들어온 프랑스 군대를 격파한 병인양요를 겪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대원군은 외국인에 대해 더욱 적개심을 가졌다. 그러한 가운데 1868년 4월 E. 오페르트가 충청도 덕산(德山)에 침입하여 군아(郡衙)를 습격하고, 이어 가동(伽洞)에 있던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

군의 묘를 도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써 대원군의 외국인 배척사상은 굳어지게 되었다. 1871년 4월 제너럴서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 함대가 쳐들어와 덕진진(德津鎭)과 광성보(廣城堡)를 점령하자, 서울의 종로 네거리를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고 결사항전을 준비했다. 조선정부가 외교교섭에 응하지 않고 전투가 장기화되자 미국 함대는 그해 5월 철수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후 근대적 조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대원군은 왜양일체(倭洋一體)라는 입장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이 일단 저지되었으나, 이후 더욱 강화된 쇄국정책으로 인해 조선은 세계사에 자주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홍선대원군은 외척세도를 봉쇄하기 위해 보잘 것 없는 가문 출신인 민치록(閔致祿)의 딸을 고종의 비로 맞이했다. 그러나 민비는 척족을 규합하고 대원군 반대세력을 결집하여 대원군 축출을 추진했다. 이에 1873년 최익현(崔益鉉)이 대원군의 정치를 정면으로 공격한 상소를 계기로 11월 고종이 진정(親政)을 선포하자 대원군은 정계에서 물러나 양주에 은거했다. 그러나 대원군은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계 복귀를 꾀했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책략(朝鮮策略)》의 반포를 계기로 이듬해 전국 유생들의 척사상소운동(斥邪上疏運動)이 전개되었는데, 그때 송지 안기영(安驥永) 등이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대원군의 서장자(庶長子) 재선(載先)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누설되어 처형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에 홍선대원군이 관련되었으나, 국왕의 아버지라 하여 불문에 붙여졌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고종에게 사태수습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자, 이 기회에 정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즉 대원군은 궁궐에서 도망쳐나간 민비가 죽었다고 공포한 후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별기군(別技軍)을 폐지하고 5군영을 복설했으며, 통리기무아문을 폐지

하고 삼군부를 복설하는 등 반개화정책을 폈다. 그러나 곧 흥선대원군은 민씨정권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 청나라 텐진[天津]으로 납치되었고, 이어 바오딩부[保定府]로 옮겨져 유폐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이홍장(李鴻章)의 밀의에 의해 1885년 8월 서울로 돌아왔는데, 운현궁에 반감금상태로 있었다. 1894년 조선에 진주한 일본군은 경복궁 쿠데타를 일으켜 민씨정권을 무너뜨린 후, 그를 앞세우고 개화파를 중심으로 새 내각을 만들어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했다. 그때 그는 일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펴다가 이노우에에 의해 정계 은퇴를 강요당했다. 그 후 1895년 8월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가 주도한 을미사변 때 일본군과 함께 궁성으로 들어가 고종을 만나고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게 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고종이 궁성을 빠져나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친러파 정권이 들어서자 대원군은 다시 양주로 은거했다.

대원군은 서화에 능했으며 특히 난초를 잘 그렸다. 그는 10년간의 집권기를 통해 왕권강화를 꾀하면서 체제의 내적 개혁으로 봉건제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며,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는 위정척사적 입장에서 국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의 개혁정치는 일시적으로 내부적 모순을 완화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후 조선사회는 더욱 급격히 해체되었고 외세의 침략도 더욱 심화됨으로써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1907년 대원왕(大院王)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헌의(獻懿)이다.

영원(英園)

1. 연혁

원 주 : 영친왕 이은(李垠)과 부인 이방자 여사

위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7호

봉원연대 : 1970년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삼거리에 이르면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와 양평으로 가는 6번 국도의 갈림길에 이른다. 이곳에서 46번 국도를 따라 경춘가도를 달리다 보면 남양주시청 못미처 금곡동 사거리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홍유릉 입구에 도착한다.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洪陵)과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황제와



영원 재실



영원 전경

순명효황후, 계비 순정효황후의 능인 유릉(裕陵)이 나란히 위치해 있기에 이 두 능을 합쳐 ‘홍유릉’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으로 조영된 왕릉이다. 이곳 홍유릉의 담장 밖으로 나있는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영친왕 이은의 무덤인 영원을 만날 수 있다. 현재 영원은 울타리로 막혀 있어 일반인들은 관람할 수 없다.

영친왕과 영친왕비 이방자(1901~1989) 여사의 합장묘인 비공개 사적지 영원은 조선의 13개 원(園)중 마지막으로 조성됐다.

홍살문과 정자각, 그리고 비각을 지나 봉분에 올라서면 곡장에 둘러쳐 있는 봉분을 만나게 되는데, 봉분 주위에는 호석과 양석이 둘러쳐 있고 혼유석과 장명등이 있어 여느 원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영원은 원입에도 무인석과 난간석을 조성해 왕의 예우를 하고 있어 다소 이채롭다.

한편 영친왕의 무덤인 영원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아직 때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커다란 묘 하나가 있는데, 지난 2005년 7월 작고한 영친왕의 아들 이구의 묘다.

3. 원주 소개

영친왕 이은[1897(광무 1)~1970]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귀비 엄씨(貴妃嚴氏)이다. 순종과는 이복형제간이다. 1900년(광무 4) 8월 영왕(英王)에, 1907년(융희 1) 황태자에 책봉되었다. 1907년 12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에 의해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잡혀갔다. 1910년 국권이 일제에 의해 강탈되면서 융희황제(隆熙皇帝 : 뒤의 순종)가 이왕(李王)으로 폐위되자, 그도 황태자에서 왕세제(王世弟)가 되었다.

1920년 일본의 흡수정책에 따라 일본 왕족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의 딸 마사코[方子]와 정략결혼을 했다. 1926년 순종이 죽자 형식상으로 왕위계승자가 되어 이왕이라고 불렸다.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일본 육군사관학교·육군대학을 거쳐 육군중장을 지냈다. 1945년 일제가



영원 정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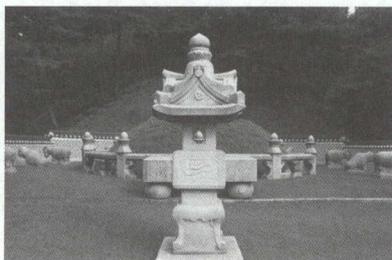


영원 비각



뒤에서 바라 본 영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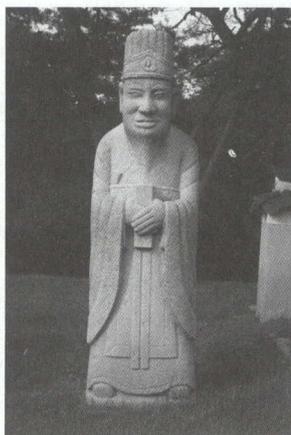
패망하자 귀국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뒤 1963년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1963년 국적을 회복하고 귀국했으나 귀국 당시 이미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앰블런스에 실려 성모병원으로 향한 영친왕은 7년간의 입원 생활 끝에 임종을 맞으려 낙선재로 돌아왔으며, 결국 1970년 5월 1일 영면하였다.



영원 장명등과 봉분



영원 원경



영원 문인석



무인석